

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

팔레오크라싸스

(유럽공동체 환경/핵안전/어업담당위원)

유럽공동체는 항상 환경문제를 정책결정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여 왔다. 건전한 환경정책을 집행할 필요성에 관한 점증하는 관심은 지침, 규정, 결정 등과 같은 200여개의 환경보호 법률장치를 포함하는 유럽공동체의 입법활동의 범위와 성격에 잘 나타나 있다. 게다가 환경관련 조항들이 단일유럽법과 유럽통합에 관한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조항 130R(2) 즉,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은 여타의 유럽공동체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제5차 환경활동 프로그램(5EAP)인 유럽위원회의 환경에 관한 중기 계획이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위원회의 의도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문건인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CED)의 「의제 21」과 동시에 기안되고 발전되었다. "지속가능성을 향하여"라고 명명된 제5차 환경활동 프로그램은 의제 21의 아이디어를 상당부분 구체화시켰으며, 특히 세 가지 기본정책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환경오염자는 환경에 대해 저지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명확한 과학적 또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활동한다는 예방적 원칙', '환경피해는 어느것보다 우선적으로 근원적 차원에서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 등 세가지이다.

리오회의는 유럽공동체가 여타 국가들과 환경협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본질은 앞서와 같이 국제적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귀빈 여러분께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각별히 고맙게 생각하며, 유럽의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의 환경보호에 유럽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은 일단 변화가 야기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 변화중에 중요한 것은 환경적 판단기준이 경제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공장노동자에서부터 아세안과 G7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수반에 이르기까지 국내적, 국제적 경제과정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유럽공동체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요청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을 채택하였다. 예컨대, 유럽위원회는 지난 20년동안 모든 환경입법에 대해 책임을 져왔지만, 유럽의 환경상황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전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내륙 수자원과 해양을 깨끗히 함은 물론, 고행 폐기물을 감축시키고 삼림을 보호해야 한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가스의 배출과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위기의 주요 측면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가지가 문 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높은 실업율을 동반한 장기적인 경제위기와 계속되는 환경의 황폐화가 그것이다.

새로운 개발 모델에 대한 접근

오늘날의 교착상태에서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 체제에 환경을 연결시키는 것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새로운 모델이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변화는 자연자원이 -자본 또한 그러한 바와 같이- 생산의 한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며 자연자원의 사용과 남용은 언제나 그 댓가를 치르게 되며, 그 부담은 사용자에게 지워질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삼림을 감소시키는 것이 생산활동으로 취급되며 여기서 생산되는 목재의 가치는 국가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에서 삼림은 구매력이 저하된 자연자본으로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이 저하된 가치는 목재의 비용에 덧붙여질 것이다. 모든 삼림자본은 삼림에 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수준으로 묶어 두고, 별목의 한계는 그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기오염과 같은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이며, 오염유발자에게 책임이 부가될 것이다. 비용은 가격 형태를 띠 것이며, 이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도와 부합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환경적인 차원을 자동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의 구조에 대해 이 새로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목할만한 것이다. 고밀도의 비용, 거주/노동이란 이원성에서 오는 비용 등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도시부문 계획이나 도시재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도심지의 문화유산의 가치도 함께 고려될 것이다. 사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새로운 도시지역 형태는 보다 저밀도적이며, 적절하게 직업이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로서, 방사형의 네트워크 형태보다는 격자 모양의 그리드 형태가 되리란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개발이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몇가지 특별한 연구에 따르면, 1만명 거주지역에서 통근 길이가 6km로 줄어들게 되면 연간 CO₂ 방출량을 3,430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물론, 그밖에 다른 정책들 역시 새로운 개발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의 가장 최적의 예는 재정정책이다. 이점에서 본다면, 조세원칙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조세원은 대체

ASSAS, EU COMMISSION
" (TOWARDS A
L ASSEMBLY ENVIRONME
N'S HALL, THE KOREAN



▲ 지난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는 팔레오크라씨스 위원장

환경을 보호주의 무역과 무역장벽의 새로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잘못 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경제와 결부시키는 이 단순한 사실은 경제적 성취와 환경보호라는 이중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는 무역없이 성장할 수 없으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적절히 형성된 틀속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목표가 주어지면, 환경의 규칙과 우선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그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로 노동, 이윤, 물품세 및 재산세 등이다. 현재의 조세 구조의 주된 기준은 첫째로 세입징수에 있으며,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적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 이 토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이향적 체계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조세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세와 소비세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자동차 및 유통세, 소비세 등은 환경정책의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개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품 포장, 쓰레기 처분, CO₂ 등 유해가스 방출세, 수송세 등 환경조세와 같은 자원이향적 조세를 통해 보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새로운 모델에서 환경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환경활동과 환경조세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도 아니며, 공동체의 산업경쟁력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 분석과 실천은 이를 입증해 주며, 환경활동은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환경활동은 다음 두가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첫째는 규범적인 역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입법과 강제를 통해 환경을 회복시키고 구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 역할의 실례는 정수 및 오수 처리시설이나 “청정 자동차” 기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적극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 및 상품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환경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예는 에너지 절약 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방식을 통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포장을 줄이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번째 활동유형은 최소한 단기간에 걸쳐서는 경제가동의 비용이 늘어나지만, 현재 무수히 많은 ECU의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련의 “환경산업”의 창조를 통해서 직, 간접적으로 고용기회의 증대라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은 직접적으로 비용의 절감과 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특별히 활동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에 있어선 이 두가지 역할들은 종종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청정 자동차” 기준은 단기적으로 생산비용을 증가시켰지만, 이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기술은 결과적으로 보다 효용성이 있고 가격이 싼 자동차 생산을 유도해 냈던 것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활용되다가 나중에 유럽에서도 응용되어 최소한 5년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을 새로운 개발 모델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모델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형태는 이 모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전환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세가지 중요한 어려움이 놓여 있다.

a) 환경비용과 혜택을 양으로 평가하는 것과 여러 경제 행위체에 그것들을 배당하는 일

b) 노동/생산/자산에서 자원으로 조세원을 바꾸는 일

c)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발 모델을 도입하는 일이 자칫 국제적인 노동분화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한 연구와 조직적인 작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정책개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환경비용과 혜택에 대한 측량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장체제로 결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이는 기존의 회계 및 조세 제도에 대한 완전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 “녹색회계”와 “녹색조세” 등이 마지막으로 산출되는 결과가 되며,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유럽위원회는 이미 실천적인 계획에 착수하였다.

2. 이미 이 일에 착수했다면, 이미 언급한 선을 따라 도시지역의 급속한 변화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와 활동계획으로 시작하라. 여기에는 도시 회복을 위한 단기적 실천 계획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도심의 보존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농 통합 개발 모델의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이 들어가야 한다.

3. 당면한 환경활동에 대한 경제적 의미와 성장·경쟁·고용·기술발전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해 긴급한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하라. 이는 문제의 긴급성이란 관점에서 볼때, 중간적인 실천 계획이 될 것이다.

4. 동일한 목표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른 공업국가들과 즉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이는 결국 새로운 “녹색가트”(Green GATT)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나는 지난 시절 논쟁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을 보호주의 무역과 무역장벽의 새로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잘못 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경제와 결부시키는 이 단순한 사실은 경제적 성취와 환경보호라는 이중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는 무역없이 성장할 수 없으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적절히 형성된 틀속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목표가 주어지면, 환경의 규칙과 우선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설계를 그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구적인 환경위원회 이외에 현재의 상황에서 그려볼 수 있는 다국적 무역기구가 즉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안들은 새로운 개발 모델을 세계적인 토대에서 구축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델은 절박한 환경의 파멸로부터 인류를 구해내고 환경과 성장간의 균형잡힌 관계의 토대를 놓아줄 수 있을 모델이기도 한 것이다.

결 론

상황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냉전시대가 종식되자, 세계의 주목은 안보상황이 또다시 위기로 인식되는 한반도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50년과 그 이상을 통틀어 자연 자원이 소모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상황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오늘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피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50년을 미래로 돌려놓고 현재의 불확실성이 잊혀진지 오랜 후에, 우리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우리의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런 목적에 함께 동참해 주길 간절히 희망하며, 지구의 환경이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95 환경관리모범업체 신청을 서두르십시오

'95년 환경관리모범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94년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6일자로 개정된 환경관리모범업체 지정 및 운영규정(환경처예규 제1994-112호)에 대해서는 본연합회로 문의바라며, 9월회보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